



을지로에 POD 인쇄사 ‘깃발’

인쇄의 메카 을지로에 POD 전문 디지털 인쇄사가 상륙했다.

피오디큐(대표 이창래)가 주인공으로 후지제록스의 최첨단 디지털 인쇄기인 아이젠3로 무장, 을지로에 확실한 디지털 인쇄 서비스 깃발을 꽂는다는 계획이다. 피오디큐는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가 지난 1월1일 신설한 독립법인으로, 지난 2월 아이젠3를 도입하고 1개월여의 설치 및 테스트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인쇄 서비스에 들어갔다. 적지 않은 설치 및 테스트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는 디지털 인쇄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고 아이젠3의 설치와 관련한 환경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 반응을 활용한 레이저 기술에 따라 인쇄가 이뤄지는 아이젠3의 최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도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향온·향습 장치의 구축은 그 예다.

오프셋 인쇄기와 상호 보완하며 ‘윈-윈’

이 사장은 디지털 인쇄기 도입에 앞서 많이 망설였다. 아이젠3가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디지털 인쇄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프셋의 고품질 인쇄물에 익숙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고객의 눈에는 디지털 인쇄물이 아직도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가 오프셋인쇄로 작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디지털 인쇄에 대한 한국후지제록스의 자세한 컨설팅과 정보공유 및 지원에 대한 약속도 결정의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이 사장은 하이텔베르그 5색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오프셋 전문업체인 상지피앤아이의 작업영역을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피오디큐는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일 신설한 독립법인으로, 지난 2월 아이젠3를 도입하고 1개월여의 설치 및 테스트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인쇄 서비스에 들어갔다.

비밀보장이 필요한 인쇄물 적극 '공략'

디지털 인쇄기 도입이 오프셋 인쇄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인쇄기의 인쇄품질을 비롯한 제반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오프셋 인쇄와는 아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품질 경쟁의 현실적 한계성을 인정하고 디지털 인쇄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이 사장은 비밀이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꺼리는 고객을 타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프셋 인쇄는 인쇄물을 모두 수거한다고 할지라도 필름이나 판재와 같은 또 다른 유형의 하드카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를 할 경우에는 CD에 작업 데이터를 저장, 가지고 와서 그 자리서 작업하고 파본은 스스로 처리하고 인쇄물과 CD를 수거해 가면 비밀이 새나갈 염려가 전혀 없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우선

이 사장은 원칙을 유난히 강조한다. 그렇게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업에 매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방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의 만족을 이끄는 것이 피오디큐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선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받아들여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장하지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디지털 인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24시간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작업처리 속도 넓은 용지 호용성

디지털 인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업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급박한 상황의 인쇄물이라면 데이터를 가지고 온 사람이 기다렸다가 그 자리서 인쇄물을 수령해 갈 수도 있다. 손질이 낮아 용지를 절약할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이젠3는 기존 디지털 인쇄기의 4기통 직열방식의 잉크드럼을 모두 없애고 '이미지 캐리어 벨트' 하나로 엔진을 설계해 오프셋에 버금가는 화질 및 속도를 구현,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획일적인 대량 오프셋 인쇄에서는 다룰 수 없는 1:1 마케팅 맞춤형 인쇄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며 개방형 모듈 및 다양한 립서버 선택이 가능하므로 고객 환경에 맞춰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A4 단면 기준 분당 110매의 속도로 600×4800dpi의 해상도에 150, 175, 200선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용지 사이즈는 최대 364×521mm, 최소 178×178mm로서 최대 인쇄영역은 358×515mm이다. 60~350g의 도공(광택/무광택/실크) 및 비도공(표면가공지, 특수지) 용지를 사용할 만큼 활용 폭이 넓으며, 기본 1만매(급지 모듈 2개 : 트레이 4단), 트레이 당 120g 기준 2500매를 저장, 급지할 수 있다. Ethernet, Token Ring, Apple Talk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1달에 20만에서 120만매까지 출력할 수 있으며, 원격 A/S가 가능해 언제 고장이 나더라도 즉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